



### 법무공단, 운영재정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운영재정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최정학 광주전남지부협의회장 등 기능별 회장단,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전남지부 주최,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주관, 광주전남지부협의회와 여행타운이 후원했다.

김해란 회장에 이어 현광진(여행타운 대표)회장이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현광진 회장은 “출소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지부장은 “보호대상자와 운영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동행을 통해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NH농협은행 광산구청지점 개점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10일 광산구청 2층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광산구청지점 개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오영걸 부구청장,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 정재봉 광산구청정자치위원장, 박미옥 광산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금동명 농협은행 부행장, 고성신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박내준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광산구청지점 개점을 통해 구청의 원활한 금고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구민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점식과 함께 농협은행 ESG경영 실천과 광산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광산!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나무심기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은지 기자**



### 광주나무병원, 소나무 전정작업 재능기부

광주복지연구원 소속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주경남)은 지난10일 광주나무병원 관계자들의 재능기부로 타운 소나무(반송) 전정작업을 펼쳤다. (사진)

전정작업은 옷자란 가지나 늘어지거나 서로 교차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부러졌거나 약해서 이상이 생긴 가지를 제거해 생육과 생장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날 소나무(반송) 전정작업에는 올 초 지역 최초로 개원해 우리지역 수목보호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광주나무병원과 전남산상림나무병원 관계자 등 4명이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위에 훈훈함을 더했다.

특히 소나무 수관이 너무 뻥뻥해 미관을 해치고 통풍과 채광이 이뤄지지 않아 생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타운 둥근 소나무 9주의 고사가지, 병든가지, 평행가지 등을 말끔히 제거해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외관을 정화해 눈길을 끌었다.

김중태 광주나무병원 원장은 “빛고을타운이 하루 수천명의 어르신들이 왕래하는 지역의 복지명소인 만큼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재능기부를 지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 호남대, 송원초 ‘AI 큐브 캠프’ 1차과정 실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캠프’ 사업에 선정된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지난 9-10일 이틀 동안 송원초등학교 5-6학년 180여명을 대상으로 ‘AI 큐브 캠프’ 1차 과정을 운영했다. (사진)

12일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현장교육에는 호남대 교수진과 학생 보조강사 등 30여명이 투입돼 첫째 날 메타버스, 엔트리 블록코딩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또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기반한 블록코딩(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번역기, 그림판 구현하기, 인구분석구현) 등 빅데이터와 햄스터를 이용해 자율주행 AI를 구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원초 AI 큐브 캠프는 11일 오전 9시부터 3~4학년부와 5~6학년부로 나눠 각각 2시간 씩 학부모와 함께 하는 온라인 인공지능 개요 교육을 진행한 뒤, 13-14일에는 3~4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2차 과정을 운영한다.

‘AI 큐브 캠프’ 초등학교 과정은 2022년 나중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한 ‘훈훈한 AI 교실’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호남대학교가 자체 개발한 교재로 운영하는 브랜드화 된 프로그램이다. **노병하 기자**



### 조선대-한국민주주의연구소 MOU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원장 김형중)은 지난 9일 오후 조선대학교 본관 아름마루에서 한국민주주의연구소(소장 이원영)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12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평화연구원 김형중 원장과 공진성 대외협력처장, 그리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이원영 소장과 이영제 부소장, 그리고 오창은 편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편협이 증가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설립 정신과 활동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연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강화·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가기로 뜻을 모았다. **노병하 기자**



### 광주대 ‘디지털전환 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LINC3.0사업단은 지난 9일 ‘제2회 함께하는 디지털전환 융합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12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제2회 함께하는 디지털전환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은 총 11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인문사회 분야(문화예술 포함)와 이공계분야 지식이 융합된 테마를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전에는 총 7개 대학 30팀이 참여했으며 광주대는 ‘K-커피프르세싱용 발효스타터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 GSI-LAB팀(식품영양학과 최준민, 강현진, 문세희, 호텔외식조리학과 김권재, 주진규)이 대상을 수상했다. **노병하 기자**



### 천우희, 2천만원 기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온정 잇따라

배우 천우희(사진)가 튀르키예(터키)·시리아 지진피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2000만원을 맡겨왔다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1일 밝혔다.

천우희는 희망브리지에 “지진으로 가족과 이웃,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희망브리지는 식량, 의약품, 의류 등

구호물자 지원과 지역재건에 해당 성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천우희는 수해, 산불 등 재난 때마다 기부에 참여했다.

앞서 배우 주현영도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날 같은 협회에 성금 3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 박수홍♥김다예 “축의금 보육원에 기부”

개그맨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보육원을 방문해 결혼축의금을 기부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사진)

지난 10일 방송된 KBS 2TV 예능물 ‘신상출시 펀스토랑’에서는 박수홍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50인분의 음식을 들고 아내 김다예와 함께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보육원을 찾았다. 보육원의 전·현직의 두 원장님은 두 팔 벌려 박수홍·김다예 부부를 반겼다. 전직 원장님은 결혼 전 보육원을 찾은 김다예를 보고, 박수홍에게 “저분 꼭 잡아”라고 용기를 북돋았다고. 박수홍은 당시를 떠올리며 원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들 부부는 장인어른(친정아버지)

의 뜻에 따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결혼식 축의금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원장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는데.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아내를) 챙겨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기부한 차량도 언급했다.

밖으로 나온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자신들이 기부한 차량에 탑승해보며 “더 열심히 살아서 애들 더 좋은 차 해드리자”라고 다짐했다. 이어 박수홍이 절친 조혜련과 함께 준비한 짝꿍 선물이 도착했다. 박수홍은 라면과 손난로 등이 담긴 선물을 전달한 뒤 아이들 식사 준비를 위해 자리를 옮겼다. **뉴시스**

### ‘대마 양성반응’ 유아인, 광고계도 손절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까지 나온 배우 유아인(37·사진)이 광고계에서 지워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유아인을 본뜬 가상 인간 모델을 제작하는 등 거액을 들여 그와 관련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던 패션 브랜드 플랫폼 A사는 광고를 모두 내린 상황이다.

유아인을 모델로 내세운 B 제약회사도 최근 홈페이지·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된 비타민 광고에서 그와 관련된 사진을 모두 없앴다. 역시 유아인이 모델인 아웃도어 브랜드 C사의 광고 등에서도 유아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두고 있는 작품만도 3편에 이르러 피해는 콘텐츠 업계에도 대대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영화 ‘승부’, 넷플릭스 오

리지널 시리즈 ‘종말의 바보’, 영화 ‘하이파이브’ 등이다. 오는 6월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 또한 비상이 걸렸다.

앞서 경찰은 식약처 수사외뢰에 따라 유아인에 대한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마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혐의 사실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유아인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간이 소변검사를 진행했고 국과수에 정밀검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유아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시스**